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 '탄력'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 공모 선정

에너지 소외지역으로 분류됐던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이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로써 대티마을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에너지 사용(LPG)이 가능하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주군 부남면 대티마을이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친환경연료(LPG) 보급 사업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

대티마을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은 사업비 6억4천여만 원(기금 70%, 지방비 30%)을 LPG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관망 저장설비와 지하매설배관 등을 설치하게 된다.

이에 대티마을 50여 가구, 89명의 주민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LPG를 사용하게 되면서 연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대티마을의 경우 산과 강에 사방이 막혀 도시가스 공급은 물론 기본적인 환경기초시설에서도 소외돼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져 오고 있어 친환경 에너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앞서 군은 주민설명회를 비롯해 이장회의 시 사업추진 과정과 목적, 방향, 주민들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금강유역환경청 수계관리위원회에 공모한 결과 결실을 맺게 됐다.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이 마무리되면 에너지 소외를 극복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통해 전례의 자연환경 보존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기대효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안병량 팀장은 "친환경연료 보급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은 물론 에너지 소외지역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금강수계 특별지원 사업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 제약을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는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최훈식 장수군수가 19일 장수를 수분리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뜬봉샘 생태관광지 현장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 조성사업 현장 방문 추진현황 살펴

최훈식 장수군수가 19일 장수를 수분리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점검했다.

2022년 금강치물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올해 12억 원 투자해 나래울마당 및 생태공원 진입로 재 정비, 천연기념물 남생이의 서식지 환경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통해 자연환경해설사와 수분마을 에코매니저 등 전문가 육성을 통한 생태관광지 홍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수확여행단, 전북투어프로그램 연계, 환경인증 등을 추가 등록해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며 마을체험과 농특산물 판매 등 주민 수익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최훈식 군수는 "전라북도 생태관광의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는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생태를 매개로 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소득사업과 연계해 잘 사는 마을, 대표 생태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견실한 시공과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청년을 품는 무주, 무주를 품는 청년!'

무주군, 청년 소통 간담회 가져

무주군이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이 살맛나는 무주 구현을 위한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해 눈길을 끈다.



무주군이 19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년이 살맛나는 무주 구현을 위한 '청년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을 품는 무주, 무주를 품는 청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한 무주군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협의체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군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정책 발굴을 위한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지역에 활력을 더하고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이 모여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수립과 함께 자유로운 청년활동이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더 발전된 청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진솔한 시간을 가졌다.

황인홍 군수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년이 살맛나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청년들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사업을 발굴해 나갈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다"며 "지역 청년들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사업을 발굴해 나갈으로써 청년들이 살기 좋은 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일자리센터,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협력

연장산업단지협의회·홍삼농공단지협의회와 협약 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센터장 최영규)와 진안군연장산업단지협의회(회장 김운운), 진안군홍삼농공단지협의회(회장 남완우)는 19일 진안군일자리센터에서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청년 및 신중년 고용일자리 기회 확대와 고용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 교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아이템 발굴 및 정보 교류, △구

인·구직 간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등 지역의 실업과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고용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상호 지원체계 활용, △지역 우수 기업체 홍보활동 등 지역 인력 채용 분위기 확산 및 정착 △기타 세 기관의 실무협약에 따른 합의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상수도 요금 50% 감면 시행

진안군은 19일 관내 전체 상수도 사용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요금 50%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초래한 물가상승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 시행을 결정했다.

감면기간은 10월부터 12월 부과분으로 3개월간이며, 관내 1만2,000여 세대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사용료의 50%를 감면 시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현재 진안군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20.5%로 전국적으로도 낮은 수준으로 요금 상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에게 물 복지 차원에서 요금동결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원예산업발전협의회 개최

진안군은 19일 원예산업발전수립 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군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장기 원예산업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최한 원예산업발전수립계획 설명회 및 실무협의회에 이어 마련한 자리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진안군 원예산업발전계획은 2018년~2022년까지 기 원예산업발전계획 기간 만료에 따라 재수립하는 것으로 기존의 원예산업발전계획과 파수산업 발전계획을 통합하고,

통합조직 중 품목 중심의 전속 출하체계를 갖춘 혁신조직을 육성하는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회의는 올해 7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9월 전문가 검토를 받은 원예산업발전계획수립(안)의 진안군 실정 및 정부정책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최종 계획안 완성을 위한 시급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무신고 숙박시설 집중 단속

무주군은 무주구천동 관광특구 주변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고 있다. 가을철을 맞아 관광특구 지역 내 안전한 공중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고객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숙박 이용객들의 안전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 단속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형 숙박시설을 갖추고 불법영업을 한 무신고 업소 2개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관원법에 따라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군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무신고 숙박업소를 단속해 관광객들의 안전과 건강, 숙박 영업질서를 저해시키는 불법적인 사항들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무주군 환경위생과 이현재 과장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단속으로 올바른 숙박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3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개최

장수군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그리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및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해 2022년도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위원장 김남수)를 중심으로 11월 2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현안 사업장 9개소를 돌아볼 계획이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7일부터 열릴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섭)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장정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우리군의 현안과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향후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집행부에는 올 한해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16회 장수 한우량사과량 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